동유럽에 불교문화재 최초로 선보인다

'한국미술 · 삶과 영혼에 깃들다' 展
10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2일
폴란드 바르샤바국립박물관

한국 ·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금동아미타삼존판불좌상 외 다수
삼국시대 불상 · 불교미술품 등
244건 391점 우리 유물 선보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금동관음보살좌상–여말선초, 금동, 높이 38.6cm, 국립중앙박물관


을사명동종 –고려 1185년 혹은 1245년, 청동, 높이 62.2cm, 국립중앙박물관


금동보살좌상 – 여말선초 금동 높이 37.3cm 국립중앙박물관

동유럽권에서 최초로 불교문화를 비롯한 한국문화재를 소개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한국과 폴란드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국립박물관에서 한국문화재 특별전 '한국미술 · 삶과 영혼에 깃들다(Splendor and Finesse : Spirit and Substance in Korean Art)'를 개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5년 바르샤바국립박물관 등 폴란드의 19개 박물관과 협력하여 '폴란드, 천 년의 예술'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전은 교환전시로,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권을 통틀어 최초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대규모 한국문화재 특별전이다.

구석기시대부터 19세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특징을 보여주는 회화, 공예, 불교미술품 등 총 244건 391점의 유물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 '선사시대: 한국 미술의 여명'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나타난 문화권인 구석기부터 초기철기까지의 시대를 다룬다. 구석기시대의 연천 전곡리 출토 '주먹도끼'가 한반도 문명의 서막을 상징하며 전시 도입부를 장식한다.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의 곡선적인 형태와 선각(線刻) 무늬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미의식을 엿본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지배층의 권위의 상징물이자 의기(儀器)인 '검파형 동기'와 '간두령'이 소개된다.

△2부 '삼국시대: 무덤 속 고대인의 삶'은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의 문화를 고분문화를 통해 살펴본다. 고분 부장품을 중심으로 전시되는 삼국시대 및 가야의 토기는 각 국가별 특징을 드러내는 유물로 선정했다. 보물 제339호 '서봉총 출토 금관'을 비롯한 각종 장신구들로 선보이는 신라의 황금 문화는 신라인의 미적 감각과 공예기술을 선보인다.

△3부 '통일신라: 극락왕생의 꿈'은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통일신라시대에 꽃피운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선보인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융합하고 유민을 포용하기 위해 불교를 국가의 중심 사상이자 대중적 종교로 발전시켰다. '금동아미타삼존판불좌상(통일신라 7세기 말, 금동, 높이 27.0cm, 국립경주박물관)' 등이 전시되는 3부에서는 불교가 전래되었던 삼국시대의 불상과 함께, 8세기에서 9세기에 이르는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본다.

4부 '고려시대: 품위와 화려'는 '금동관음보살좌상(여말선초, 금동, 높이 38.6cm, 국립중앙박물관)', '금동보살좌상(여말선초 금동 높이 37.3cm 국립중앙박물관)' 등 화려하게 발전한 고려의 불교미술과 공예미술을 소개한다. '을사명동종' 등 다양한 불교의식구와 사경(寫經) 등의 금속공예는 당시의 수준 높은 미술문화와 미의식을 반영한다. 4부의 하이라이트로 선보여지는 고려청자는 바르샤바국립박물관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별도의 공간에서 집중 전시된다. 아울러 고려청자에 이어 조선의 분청사기, 백자, 청화백자를 전시하여 한국 도자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도자 테마 공간을 조성했다.

5부 '조선시대: 예로 구현된 고귀한 이상'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였던 조선시대의 미술과 문화를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선보인다. 왕실 문화, 사대부 문화, 규방 문화 그리고 제사 문화 총 4개 부분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미술품을 소개한다.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보(御寶)'와 '일월오봉도'를 비롯한 회화와 문방용품, 장신구, 백자제기 등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다소 생소한 폴란드 관람객들에게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접근을 시도한다. 고려 금속공예를 대표하는 '은제 금도금 표주박 모양 병'과 '은제 금도금 고리' 등 12점을 디지털돋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848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창경궁에서 거행된 진찬을 그린 '무신진찬도'는 외국인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내용과 구성인 점을 감안하여 세부 장면을 터치하면 부분 확대와 설명이 제공되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보인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위치한 바르샤바국립박물관은 1862년 개관하였고, 폴란드의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회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품 약 83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폴란드의 대표적인 국립박물관이다.

미황사 괘불과 함께하는 가을축제

제20회 미황사 괘불재 그리고 음악회
해남 미황사 10월 26일 오후 1시
원장현 · 박강수 · 미황사합창단 등


지난해 미황사 괘불재 모습.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10월 26일 경내에서 '제20회 미황사 괘불재 그리고 음악회'를 개최한다. '미황사의 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괘불재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괘불모심'과 6시부터 시작되는 '미황사 음악회'로 진행된다.

△괘불재(사회-화림 스님 · 장한소)는 미황사 괘불탱(보물 제1342호)을 마당으로 이운해 펼치는 '괘불이운'으로 시작된다. 헌향헌다에 이어 해남 주민이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성과를 부처님께 올리는 만물공양이 이어지고, 예불, 대흥사 조실 보선 스님의 법어, 그리고 원장현의 대금연주로 음성공양이 이어진다.

△미황사 음악회(사회 박양희)는 저녁예불로 시작한다. 남도의 우리소리와 대금 등 우리 전통악기 연주, 한국무용 등으로 구성된 음악회에서는 원장현의 대금연주 명상음악, 서점숙의 춤 '천불 새가 되어 그리다', 원장현 · 신경환 등이 함께하는 시나위연주, 이범채 · 박필수의 판소리, 박강수의 노래, 미황사합창단의 합창 음성공양, 미황사군고단의 풍물굿, 다함께 참여하는 강강술래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금강 스님, 신경환이 함께하는 '발원'으로 막을 내린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이곳에 처음 미황사라는 도량을 지었던 의조화상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합니다. 열두 암자의 대찰이었던 1500년대 미황사, 이곳에 깃들어 눈밝은 수행자로 살았을 선배스님들을 생각합니다. 1989년 이곳에 짐을 풀었던 그 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 오늘을 다시 생각합니다. 미황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괘불로 부처님 모시고 함께 할 수 있어 참 기쁩니다"고 괘불재의 의미를 새겼다.

이번 괘불재의 만물공양에 참여하고 싶은 대중은 공양 올릴 내용을 사연과 함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061-533-3521).

미황사는 부대행사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괘불재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와 행복한 문화장터 '해남모실장', 영산문화재연구소의 '단청그리기'도 함께 진행한다.

박재완 기자

대흥사 고품격 산사음악회

'제1회 천년사랑나무 음악회'
대흥사 10월 26일 오후 2시

땅끝 해남의 천년고찰 대흥사는 10월 26일 오후 2시 대흥사 연리목 특설무대에서 '제1회 천년사랑나무 음악회'를 개최한다.

대흥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사랑과 화합을 주제로 하림, 고상지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이 모여 등재 1주년을 축하고 깊어가는 가을의 산사를 물들인다.

대흥사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차문화의 성지로 불리며 템플스테이 명소로도 유명해 대중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량이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JTBC 〈비긴어게인3〉를 통해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 하림이 예술감독으로 참여한다. 또한 독보적인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흥겨운 블루그래스와 컨트리 뮤직을 보여주는 컨트리공방, 싱어송라이터 최문석과 현악앙상블 필스트링이 함께해 수준 높은 음악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의 총예술감독을 맡은 하림은 "가을 산사의 운치와 좋은 음악, 좋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지방에서 좋은 음악을 라이브로 접할 기회가 적은 분들이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음악회를 개최하는 대흥사 관계자는 "대흥사가 위치한 두륜산은 하늘 아래 가장 큰 산으로 꼽히는 수미산의 정기가 흘러내린 산이다.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세워진 아름다운 절 대흥사가 정성껏 준비한 고품격 음악회가 많은 분들에게 휴식과 위로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음악회는 전석 무료다. (061)534-5502.

박재완 기자



절집에 살게 된 사연도 가지가지

용, 사자, 거북, 게, 수달, 토끼, 돼지에서 도깨비, 야차, 삼신할미, 신선까지,
사찰 구석구석에 그림과 조각으로 남게 된 이들의 사연을 경전과 우리 역사
그리고 전설까지 파헤친 크로스오버 불교문화 결정판!



노승대 지음 • 512쪽 • 28,000원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법당의 현판 옆을 뚫고 고개를 내민 청룡과 황룡은 그 꼬리가
저쪽 법당 뒤편까지 뻗어 있다. 아예 법당을 달고 날아오를 기세다.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그 옆에는 야차가 힘겨운 표정으로
사찰 지붕을 이고 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법당 안으로 들어가니 기둥에는 용에 쫓긴 수달이 나 살려라 달아난다.
수달이 고기를 물고 있어 용이 화난 것일까? 불단 아래쪽에서는 가재와 게가
맞서 겨루고 있다. 누가 이겼을까? 또 한쪽 벽에는 신선들이 끼리끼리 모여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무슨 이야기일까?



목차
Ⅰ 사령과 사신 _ 거북, 호랑이, 용(용1. 용들의 천국 / 용2. 용의 아홉 아들 / 용3. 용면와냐 귀면와냐)
Ⅱ 육지와 수중의 생물 _ 물고기, 게, 수달, 토끼, 돼지, 코끼리, 사자
Ⅲ 상상과 전설의 주인공 _ 도깨비, 장승, 악착보살, 야차, 가릉빈가, 삼신할미, 신선
Ⅳ 꽃과 풀 _ 연꽃, 모란, 포도, 매란국죽

무료 저자특강 1탄

"절에 사는 수중 생물과 반야용선"

• 일시. 2019년 10월 27일(일) 오후 3시~5시
•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조계사 내)
• 선착순 300명, 사전 접수자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신청02-420-3200)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